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약성과 보호자 특성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부찬주** · 심혜인*** · 조운오****

차 례

I. 서 론
II. 이론적 논의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결 과

[국문요약]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폭력피해경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일상활동이론을 바탕으로 그 피해 요인을 생리적취약성, 표적취약성, 보호자 특성으로 구성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자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차별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폭력피

* 논문제출일-2018.11.10., 논문심사일-2018.11.30., 게재확정일-2018.12.17.

이 성과는 2018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2018R1A5A7023490).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박사과정 학생,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E-mail: chanjuis@gmail.com, Tel: 02-2260-3246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박사과정 학생,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E-mail: simmyosoon@naver.com, Tel: 02-2260-3246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사법대학 교수(교신저자), 서울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혜화관 2층, E-mail: ycho@dongguk.edu, Tel: 02-2260-3247

해의 영향요인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해당하는 성별과 학교급 요인이 확인되었고, 보호자 특성요인으로 자녀생활 관여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요인을 통제했을 때,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일수록,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동시에 보호자의 자녀생활 관여수준이 낮을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다문화가정 자녀를 둔 보호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내 청소년 학교폭력피해예방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주제어: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일상활동이론, 학교폭력피해, 대응방안

1. 서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외모의 차이, 능숙하지 못한 한국어 등 기존의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다른 이유로 학교에서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이춘재·곽금주, 2000; 노성호·이성식, 2003; 설동훈, 2006; 정행준, 2011; 오세연·김학범, 2013; 이애련, 2015). 다문화 자녀의 학교폭력피해 증가는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김갑석, 2018: 73). 다문화가정 자녀 학생의 수는 교육통계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국제결혼가정¹⁾·외국인가정²⁾ 등의 자녀가 2017년에는 총 109,387명으로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

82,733명(75.6%), 중학생 15,945명(14.6%), 고등학생 10,334명(9.4%), 기타 375명(0.3%)인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는 2006년 총 9,389명의 수치에 비하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 186명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생활 차별 실태조사(인권신문, 2012; 이애련, 2015: 120 재인용)를 시행한 결과, 37%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과 같은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의 이유는 발음이 이상해서 놀림을 당하거나, 나라에 대한 무시, 피부색 차이의 놀림, 협박, 폭행, 금품갈취 등의 피해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행태의 비율을 살펴보면 놀림, 무시, 따돌림과 같은 정서적 폭력이 전체의 75.8%로 폭행 및 금품갈취 등의 물리적 폭력보다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김갑석, 2018: 74). 이는 2015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³⁾ 내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서도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피해보다 구두로 하는 ‘협박, 욕설’과 간접적인 ‘집단따돌림(왕따)’

- 1) 국제결혼가정 자녀란 국제결혼 가정 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와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와 함께 중도에 국내로 입국한 자녀를 일컫는다(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주제통계>주요지표>유초중등 통계>유형별·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현황(2017). <http://kess.kedi.re.kr/index/> 최종검색일 2018.06.18.)
- 2) 외국인 가정이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일컫는다(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테마통계>주요지표>유초중등 통계>유형별·학교급별 다문화가정 학생현황(2017). <http://kess.kedi.re.kr/index/> 최종검색일 2018.06.18.)

- 3)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유형(복수응답): 국가통계포털>사회>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년. (<http://kosis.kr/search/search.do> 최종검색일. 2018. 6.8.)

피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행태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를 겪게 되었을 때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교사의 차별 및 사회적 편견으로 교내 생활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강효정, 2016: 13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관련 대응방법⁴⁾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11세 이상 응답 아이들의 30%는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참았다’는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11% 내외는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참거나 그냥 넘어가는 등의 비율은 2012년 조사에 비해 평균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폭력에서 침묵하는 피해 학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3; 통계청, 2016).

위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증가 및 학교폭력 피해 증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연구는 피해자학의 주요이론인 일상활동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와 일상활동 요인에 근거하여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자료 가운데 ‘다문화가정으로서 차별 경험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126명을 추출하여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원자료는 2015년 5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실시된 조사로 초등학교(4학년-6학년), 중학교(1학

년-3학년) 고등학교⁵⁾(1학년-3학년)에 재학 중인 총 10,4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관련 지표항목과 전문가의견조사를 토대로 작성된 조사지에 응답한 것으로, 다문화 아동·청소년만이 응답할 수 있는 질문을 내포하고 있어 이 연구에 활용하였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피해실태를 살펴보고, 피해 유발요인이 무엇인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일상활동이론과 학교폭력피해 요인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에서는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개인의 생활습관이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피해자의 일상생활 특성을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기회(Opportunity) 구조의 변화를 강조하기 시작했으나, 과거 초기 이론에서는 집 내외부의 물리적 특성이 초점을 두어 피해자가 주로 어디에 머무는가를 탐색하는데 주력했고, 동시에 가구의 범죄피해 가능성을 예측하고자 노력하였다(곽대경 외, 2011:247; 심현정 외, 2017: 45에서 재인용).

일상활동이론에 앞서 Michael Hindelang과 그의 동료들(1978)은 범죄피해를 결정하는데 개인의 생활양식이 주요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이는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이라 명하였다. 개인의 생활양

4)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복수응답): 국가통계포털>사회>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5년. (<http://kosis.kr/search/search.do> 최종검색일. 2018. 6.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폭력 대응방법(복수응답): 국가통계포털>사회>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2년. (<http://kosis.kr/search/search.do> 최종검색일. 2018. 6.18.)

5)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를 포함하고 있다.

식에 대해서는 “학교나 직장을 비롯한 직업적 활동과 여가활동을 포함한 개인의 일상적인 활동(이민식·김람희, 2013: 104인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어떤 학생이 학교폭력피해를 당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들에 비해 학교폭력피해를 당하기 쉬운 생활양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를 발전시킨 이론이 일상활동이론이다. Cohen과 Felson(1979)은 시간적·공간적으로 조건을 두어 범죄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상황을 세 가지 요소로 정리하였다. 이는 동기화된 가해자 존재(motivated offenders), 범행대상으로서 적절한 피해 대상(suitable targets), 보호자의 부재(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를 들었다. 만약 이 세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부족하다면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연구자들은 범죄피해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일상활동이론과 라이프스타일이론의 개념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두이론의 통합을 통해 범죄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주요인을 피해자 대상의 적합성(target suitability), 비정상적인 생활 습관(deviant Lifestyle), 동기 부여 된 범죄자와의 근접성(proximity to motivated offenders), 보호자의 부재(lack of guardianship)로 확대시켰다(Cohen, Kluegel, & Land, 1981; Wilcox, Tillyer, & Fisher, 2009.).

이 연구에서는 일상활동이론에 따른 다문화 가정자녀의 학교폭력피해의 주요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세부요인별 학교폭력피해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적절한 범죄피해대상으로 대상자의 취약한 상태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신체적 취약성은 대상자 스스로가 신체적으로 취약하다고 느끼는 신체적 특징을 말하며(Killias et

al. 2012), 건강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도 범죄 피해의 위험률이 높고, 실제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위험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Cossman & Rader, 2011). 국내 연구에서도 주관적 건강상태수준이 낮을수록 취약한 표적이 될 수 있으며(이다영 외, 2017), 건강상태 수준이 낮고, 부상빈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식·김람희, 2013:118). 반면 신체적취약성 뿐만 아니라 심리적 취약성에 대하여 Tillyer와 그의 동료들(2011)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폭력피해를 검증한 결과, 폭력범죄피해에 신체적 취약성은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며, 심리적 취약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민식·김람희(2013: 119)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상활동이론에서는 적당한 피해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같은 개인요인과 생활습관요인 등이 강조되어 왔으나, 일부 연구자들은 보호자(Guardian -ship)의 존재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기도 하였다(Garofalo & Clark, 1992). 초기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보호자의 형태, 보호의 정도, 보호자의 가시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보호자에 대한 관련 요인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지적 이후 연구자들은 보호자 역할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특히 연구대상자가 성인보다 청소년일 경우에는 부모의 역할이 자녀의 범죄피해 표적에 노출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범죄피해조사(NCVS)의 학교폭력조사 자료를 활용한 한 연구에 따르면, 수업을 빼먹는 일탈행위가 학교폭력피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Bouchard et al., 2012), 보호자

허락 없이 밤에 몰래 외출하는 경우(Tillyer et al., 2011) 또는 청소년이 밤늦게 돌아다니는 행동이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 나타났다(Schreck, Wright, & Miller, 2002; Schreck et al., 2004; Like-Haislip & Warren, 2011).

또한 국내 연구에서는 부모님 없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거나, 아파도 내버려 두거나, 더러운 옷을 입고 지내고, 불결한 이부자리에서 잠을 자거나, 식사를 거르는 경우 등의 방임에 가까운 보호자의 무관심한 태도가 학교폭력피해에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이민식·김람희, 2013:119). 즉, 무단결석, 늦은 시간 외출 등의 일탈행위는 개인수준의 생활습관으로 볼 수 있으나 학생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역할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피해에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한 세 부적인 주요 요인으로는 신체적 취약성, 표적의 취약성, 보호자의 자녀에 대한 생활관여 수준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일반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 문제를 검증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대하여 검증해보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의 실증연구를 통한 검증으로 제시된 요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자 한다.

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 요인

기존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국내 연구에서는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주로 차별을 경험하는 특징이 학교폭력 피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선남이, 2013).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 증가 이후 학교폭력피해에 관한 보고가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고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에 관한 실증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이애련, 2015; 강효정, 2016; 이규영·이다예, 2017; 김갑식, 2018).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피해 연구는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오세연·김학범, 2013; 이규영·이다예, 2017)), 다문화가정자녀와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교육학, 가정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주로 연구대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폭력문제는 범죄학에서 주요한 이슈이고,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일반가정 자녀와의 학교폭력피해 영향 요인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일상활동이론을 통하여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하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국내외의 다문화 가정자녀의 학교폭력피해와 관련된 영향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우선 Hindelang 등(1978)의 연구에서는 범죄피해 발생정도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인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연령, 성별, 결혼 상태와 같은 인구사회학적 요소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미국사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기대와 구조적 제약이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특히 이민자들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사회 및 문화적 규범에 대한 적응과정에서 인종 및 다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Hindelang, Gottfredson, & Garofalo, 1978). 연령,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폭력피해에 있어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또래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기의 자녀인 경우에는 자신의 외모나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부적응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다(이애련, 2015; 118).

이민자와 후속세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민자 자녀들의 생활습관이 학교 내 폭력피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eguero, 2013). 특히 이민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그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생활습관과 일상 활동 내 특정 패턴으로 인해 학교폭력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보호자인 부모가 가정환경을 방치하고 방임하는 등의 유기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나, 자녀의 양육 및 보호를 소홀히 할 경우에 왕따, 놀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례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가 가출하여 부재한 관계로 자녀의 청결도가 떨어지고, 학교 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었다(천호성, 박계숙, 2012: 438-439).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해당 가정의 자녀들이 반드시 차별을 경험하거나,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김석준, 2015).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일반 가정 자녀에 비하여 차별에 취약하다는 점이다(양계민 외, 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외모적으로 한국양부모를 둔 자녀와 차이가 존재한다. 이처럼 생득적 특성에 따라서 학교폭력피해와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있다(강효정, 2016). 다문화가정 자녀가 차별을 경험하는데 언어능력과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를 통해 학교폭력피해와 차별의 영향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석준, 2015).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차별을 경험한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의 유발요인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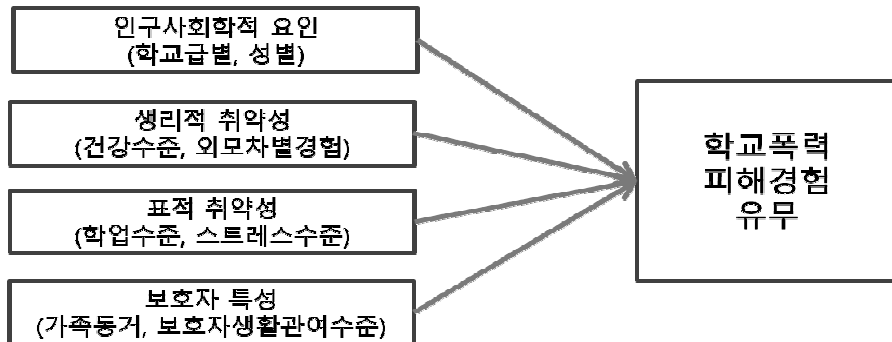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이 연구에서는 조사의 원자료에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일반가정 학생을 구분하는 설문이 시행되지 않아 다문화가정 학생을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힌다. 그러나 차별경험을 질문하는 항목에서 “다문화가정으로서의 차별 경험”의 유무에 대해 응답한 다문화가정 자녀 126명을 추출할 수 있었으며, 선행연구에서 차별경험과 학교폭력피해간의 유의성이 논의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는 크게 인구사회학적 요인(학교급별, 성별)과 일상활동이론에 근거에 따른 취약성이 높은 피해자의 특성과 보호자의 특성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피해자의 취약성 관련 요인은 생리적 취약성인 건강수준과 외모로 인한 차별을 들었으며, 표적취약성으로는 교내에서의 학업수준과 학업문제 또는 또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스트레스 수준을 채택하고자 한다. 보호자의 특성으로는 가정의 구조에 근거하여 동거 형태가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지의 여부와 자녀에 대한 보호자의 생활수준 관여도가 높은지를 측정한 항목을 채택하고자 한다. 즉, 이 연구의 가설은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하여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변인으로 하며, 생리적 취약성, 표적 취약성, 보호자 특성이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며, 연구모형을 요약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설계 모델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이 연구에서 검증할 변수들을 조작화 한 내용은 <표 1>과 같이 요약 정리하였다. 결과변수인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총 7문항으로 구성된다(<표 3> 참고). 원자료에서는 학교폭력피해에 관하여 ‘한 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등으로 정도를 묻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각 피해유형별로 ‘경험 있음=1’, ‘경험 없음=0’으로 수정하여 취합 한 다음 다시금 7가지 학교피해 유형 중 ‘1번 이상 피해경험 있음=1’, ‘피해경험 없음=0’으로 더미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독립변수를 설명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취약성에 근거한 변수를 살펴보면, 생리적 취약성과 표적취약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생리적 취약성에 대해서는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1’,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2’, ‘건강한 편이다=3’, ‘매우 건강하다=4’으로 4점 척도로 조사한 것을 활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 때문에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의 질문에 ‘한 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으로 5점 척도화 된 문항을 ‘차별경험 있음=1’, ‘차별경험 없음=0’으로 재 코딩하였다.

표적취약성으로는 학교폭력피해를 종속변수로 검증하고자 하는 점과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학업수준과 스트레스 수준으로 보았으며, 학업수준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 된다고 생각하는가?’의 질문에 ‘매우 못하는 수준’, ‘못하는 수준’, ‘중간’, ‘잘하는 수준’, ‘매우 잘하는 수준’ 5점 척도를 그대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반면 스트레스 수준은 총 6문항 조사되었으나, 그 중 학교와 관련도가 높은 학업수준(학업부담, 성적 등), 또래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수준을 선택하였다. ‘(스트레스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된 두 변수를 합산하여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변수를 조작화 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내 관련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특성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가족동거 여부와 보호자 생활참여수준의 변수들을 활용하였는데, 가족동거 변수의

〈표 1〉 기본 변수 설명

유형	변수	조작화	문항
종속변수	피해 정도	학교 폭력 피해유무	①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②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③ 따돌림을 당함. ④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⑤ 협박을 당함. ⑥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⑦ 강제적인 심부름.
독립변수	생리적 취약성	건강수준	①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②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외모 차별	외모나 신체조건(키, 몸무게 등)의 ① 차별당한 적이 있다. ② 차별당한 적이 없다.
	표적 취약성	학업 수준	학생의 성적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못하는 수준, ② 못하는 수준, ③ 중간, ④ 잘하는 수준, ⑤ 매우 잘하는 수준
		스트레스 수준	①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② 또래와의 관계
	보호자 특성	가족 동거	① 양부모, ② 결손가족
		보호자 생활관여 수준	①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있다. ②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깨끗하지 않은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③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내버려 둔다. ④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쓰지 않는다.

경우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모두를 표시해 주세요. 직장 또는 학교 때문에 따로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도 모두 표시해 주세요.’의 문항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새아버지, 새어머니, 형제 또는 자매, 친척, 기타’등으로 중복 체크된 항목을 ‘양부모(할머니, 할아버지 등 기타 가족 포함)=1’인 경우와 ‘결손가족(거주하는 가족 중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0’인 경우로 더미화 하였다. 또한 보호자생활관여수준에 관한 변수로는 5가지 문항으로 조사되었으며(표1 참고), 각 문항별로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한달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1-2회 정도’, ‘일주일에 3회 이상으로’ 5점 척도화 된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5개의 항목의 총합의 평균을 변수로 활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보호자는 자녀에 대하여 생활관여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126명의 학생들의 기본특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첫째, 연령에서는 고등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전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중학생 35.7%, 초등학교 19.8%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의 경우 4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고학년만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가족구조를 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기타의 사유로 구조적 결손가족인 경우는 전체의 21.4%로 나타났다. 즉, 대략 10명 중 8명의 다문화가정은 양부모가정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별을 살펴보면, 126명의 다문화가정 자녀 중 27명이 여학생으로서 전체의 21.4%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99명(78.6%)이 다문화가정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남학생으로 전체 응답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본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주		빈도	퍼센트(%)
연령	초등학생	25	19.8
	중학생	45	35.7
	고등학생	56	44.4
가족구조	부모동거	99	78.6
	부모결손	27	21.4
성별	남자	99	78.6
	여자	27	21.4
지역규모	대도시	68	54.0
	중소도시	48	38.1
	읍면지역	10	7.9
학업수준	상	26	20.6
	중	57	45.2
	하	43	34.1
경제적 수준	상	52	41.3
	중	55	43.7
	하	19	15.1
총 계		126	100.0

넷째, 거주지 지역규모를 살펴보면 대도시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5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3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은 전체의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규모별로 보면 대도시(54.0%)>중소도시(38.1%)>읍면지역(7.9%)에 거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학업성적에 대해 다문화가정 자녀 스스로가 평가한 수준을 살펴본 결과 중간 수준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5.2%였으며, 다음으로는 못하는 수준 또는 매우 못하는 수준으로 응답한 학생은 34.1%였다. 다문화가정 차별경험이 있는 자녀 중 20.6%만이 성적이 상위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여섯째, 가정의 형편 즉 경제수준에 대해서

는 중간 수준 43.7%, 상위 수준 41.3%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의 15.1%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우에만 하위 수준의 경제수준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연구결과

1.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실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는 초·중·고등학생 126명의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의 정도를 살펴본 경우 <표 72>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행위에 대하여 우선 정서적/심리적 폭력을 살펴보면 심한 욕설이나, 모욕

〈표 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실태

단위 : N(%)

학교폭력 피해행위	한번도 없음	한번 이상 있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결측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78(61.9)	48(38.1)	21(16.7)	17(13.5)	5(4.0)	5(4.0)	-
2. 따돌림	94(74.6)	32(25.4)	13(10.3)	13(10.3)	4(3.2)	2(1.6)	-
3. 협박을 당함	95(75.4)	30(23.8)	11(8.7)	11(8.7)	5(4.0)	3(2.4)	1(0.8)
4. 성적인 희롱(놀림)이 나 추행을 당함	92(73.0)	33(26.2)	11(8.7)	10(7.9)	5(4.0)	7(5.6)	1(0.8)
5. 강제적인 심부름	99(78.6)	26(20.6)	7(5.6)	14(11.1)	1(0.8)	4(3.2)	1(0.8)
6.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93(73.8)	33(26.2)	10(7.9)	16(12.7)	3(2.4)	4(3.2)	-
7.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102(81.0)	24(19.0)	7(5.6)	13(10.3)	3(2.4)	1(0.8)	-

을 한번 이상 당한 경우는 전체의 38.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의 61.9%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했다. 학교에서 따돌림의 피해경험이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전체의 25.4%, 경험이 없는 학생은 74.6%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협박을 당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전체의 23.8%였고,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75.4%에 해당한다. 다문화가정 자녀중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의 26.2%, 경험이 없는 경우는 전체의 7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적인 심부름과 같은 괴롭힘을 경험한 다문화가정 자녀는 전체의 20.6%, 경험이 없는 학생은 전체의 78.6%로 보고되었다. 정서적/심리적 학교폭력피해의 경우에는 심학욕설이나 모욕을 당함>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따돌림>협박을 당함>강제적인 심부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리적인 학교폭력으로는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적이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에는 26.2%가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73.8%가 피해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적이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전체의 19.0%, 경험이 없는 학생은 전체의 81.0%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직접적인 폭력피해가 금전갈취 등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기는 피해의 경우보다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의 정서적/심리적, 물리적 폭력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심한욕설이나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함, 폭행이나 구타를 당하는 경우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2.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 차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학교폭력피해(피해행위 총합)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표 73>과 같이 지역규모, 학업수준, 경제적 수준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비행행위 총점 집단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표 4〉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의 차이

변인		평균(<i>M</i>)	표준편차(<i>SD</i>)	<i>F/t</i> (<i>p</i>)
학교급	초등학생	2.72	2.94	<i>F</i> =3.738* (0.027)
	중학생	2.02	2.62	
	고등학생	1.15	2.17	
성별	남자	2.09	2.72	<i>t</i> =3.884*** (0.000)
	여자	0.63	1.33	
지역규모	대도시	1.68	2.57	<i>F</i> =0.556 (0.575)
	중소도시	2.04	2.63	
	읍면지역	1.20	2.10	
경제적 수준	상	1.15	2.15	<i>F</i> =2.979 (0.055)
	중	2.09	2.74	
	하	2.58	2.80	

p* < 0.05, *p* < 0.01, ****p* < 0.001

나타났다. 단, 학교급과(*F*=3.738, *p*<.05) 성별의(*t*=3.884, *p*<.001) 변수만 학교폭력피해 점수에 있어 집단평균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자녀의 평균 피해점수가 초등학생 2.72, 중학생 2.02, 고등학생 1.15이었다. 또한, 성별에 있어서는 남학생의 경우 2.09, 여학생의 경우 0.63으로 각각의 학교폭력피해 점수를 나타냈다. 학교급별과 성별 각 집단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간략히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구사회학적 변인 별 학교폭력피해 평균의 차이를 *t-test* 또는 *ANOVA* 분석을 실시한 것은 다중회귀분석에서 활용할 최종확정 모델과 다소 중복되는 점이 있으나, 이를 바탕으로 하여 모델 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제변인들에 대하여 대략적인 사전과약을 통해 모델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최종검증 모델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과 학교급별 변수만을 활용하였다.

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 영향요인 분석

이 연구는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 유발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이 연구의 모델은 Durbin-Watson이 2.005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적절한 회귀모형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치가 2에 가까우면서 0 또는 4와 가깝지 않아 잔차들 간에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델의 *F*값은 4.986(*p*<.000)으로 회귀선 역시 모델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VIF* 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모두 2를 넘지 않는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공차 한계 역시 모두 0.1 이상의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 피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성별과 학교급별의 인구사회학적특성을 통제변인으로 두고, 건강수준 및

〈표 5〉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학교폭력피해경험유무				
		SE	β	t	공선성 통계량	
					공차한계	VIF
인구사회학적특성	성별	.105	.231	2.632*	.850	1.177
	학교급별	.059	-.265	-2.971**	.820	1.219
생리적취약성	건강수준	.061	-.127	-1.376	.766	1.305
	외모차별경험	.091	.113	1.360	.946	1.058
표적취약성	학업수준	.040	.106	1.243	.905	1.105
	스트레스수준	.063	.107	1.163	.774	1.293
보호자특성	가족구조	.099	-.063	-.766	.956	1.046
	자녀생활 관여수준	.054	.241	2.806**	.889	1.125

 $R^2(\text{adj. } R^2) = .261(.209) / F = 4.986(p > .001) / N = 126$
* $p < 0.05$, ** $p < 0.01$, *** $p < 0.001$

※성별은 남자=1, 여자=0, 외모차별경험은 없음=0, 있음=1, 가족구조는 결손가정=0, 양부모가정=1, 기타변수들은 모두 연속형 변수로 코딩됨.

외모차별경험인 생리적 취약성요인, 학업수준과 교내 스트레스수준을 표적취약성으로, 가족구조와 자녀생활 관여수준을 보호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일상활동이론을 검증하였다.

각 독립변수 중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의 성별, 학교급별, 보호자의 자녀생활 관여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성별과 학교급별을 살펴보면, 성별의 B 값이 양의 값을 가져 다문화가정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학교폭력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beta = .231, p < .05$). 학교급별의 β 값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폭력피해를 나이가 어린 다문화가정 자녀일수록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65, p < .01$).

일반건강이론에 근거한 각 요인들은 인구사회학적요인의 변수들을 통제했을 때, 다문화가정 보호자의 생활관여수준이 낮을수록 해당 자녀의 학교폭력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 = .241, p < .01$).

V. 결 과

여성가족부의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에서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녀들 중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전체의 10.2% 학생들 중 64.7%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45.2%는 학교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25.5%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10.9%는 부모의 관심이나 경제적 지원이 부족해서 라고 응답한 것을 볼 수 있다(정해숙, 2016: 524). 그리고 매년 2만 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에 기다리는 것으로(연합뉴스, 2018)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교부적응 및 학교폭력 등의 학교생활 문제에 대한 관심과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시기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으로서 차별경험이 있었던 126명의 초중고생들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면, 심리적 학교폭력으로는 심한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우는 전체의 38.1%에 해당

하였고, 따돌림 피해의 경험은 전체의 25.4%, 협박을 당한 경우 전체의 23.8%, 성적인 희롱(놀림)이나 추행을 당한 경우 전체의 26.2%, 강제적인 심부름은 전체의 2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적 학교폭력의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전체의 26.2%,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우는 전체의 19.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문화가정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자녀들의 학교폭력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일상활동이론을 근거로 하여 다중회귀분석 모델을 통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생리적 취약성, 표적 취약성, 보호자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하여 모델을 구성한 결과, 그 모델의 R^2 설명력은 26.1%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중 학교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는 성별, 학교급별, 보호자의 자녀생활 관여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저학년일수록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애련(2015)의 연구에서 언급한 청소년기의 자녀가 초등학생의 자녀보다 따돌림과 같은 학교부적응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을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가정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학생들로만 추출된 샘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의 경험 유무 따라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다중회귀분석 모델 내에서 다문화가정 보호자의 자녀생활 관여 수준이 낮을수록 학교폭력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핵심 가설을 중심으로 결과를 다시 설명하면, 밤늦게까지 홀로 집을 본 적이 많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거나 깨끗하지 않은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많은 경우, 혹은 보호자

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거나, 학교를 결석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학교폭력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연구결과를 볼 수 있었다(천호성, 박계숙, 2012: 438-439).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대안을 살펴보기 앞서 이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126명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 모두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학생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으로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 학생들이 학교폭력피해 경험에 있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인 권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학생들의 학교문화, 분위기 개선을 통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사의 차별 및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교내에서 위축되는 실태를 볼 때(강효정, 2016) 학생뿐만 아니라, 선생님 역시 다문화 인권교육의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일상활동이론에 근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피해 유발요인으로 보호자의 특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 지역사회 내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자녀들의 직접적인 보호자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보호자의 생활 관여수준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생활 관여수준을 변수로 검증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밤늦게 까지 자녀가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질병, 식사, 결석 등 자녀에 대한 관심이 낮은 가정의 경우 실질적인 신체 및 생활의 관여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정서적 관여

까지 고려한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학교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을 위해 보호자의 관여 및 가족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였는바, 해당 요인을 우선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지적된 내용으로써 초등학교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족의 정서적 관여가 하나의 조절효과로써 청소년의 학교적응 정도와 문화적응 관련 스트레스 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은선경, 2010).

부모의 생활참여 수준이 낮은 이유가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물리적 관여가 어려운 것인지, 언어·문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국내에서 자녀를 위한 활동을 참여할 기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지 등 정확한 원인분석을 위하여 1차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되어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육 및 학교폭력 관련 법안이 마련되어 피해구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동법 제16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한 내용은 현재 부재한 상태이다. 하지만 2016년 11월 2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접수상태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태이나 개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

았다. 반면 매해 증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수에 따른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피해학생과 부모 모두 학교폭력피해에 대한 한국 실정의 지식이 부족하고, 특히 언어적 문제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위원회 등을 회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참여와 이해가 어렵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전문통역의 지원은 가능할 수 있으나 학교폭력에 관한 전문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단기간 내에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학교폭력피해의 법률 개정과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폭력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긴급대안으로 사회적 지원 및 연계체계를 우선적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경찰, 학교폭력 전문가, 통역 서비스, 지역별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협력하여 원스톱지원으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2차 피해 및 학업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표본추출에 한계가 있었다.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와의 구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다문화가정 자녀를 추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후속연구로 일반한국인 가정 자녀와 다문화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로서 차별경험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등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 간 비교연구 및 차별과 학교폭력피해와의 관계를 좀 더 세부적으로 검증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의 차별 경험 등의 초기 피해를 진단하여 학교폭력피해로 심화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추가로 관여수준이 낮은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인터뷰 등을 통한 사례연구 등으로 질적 연구를 통한 연구 결과 보완작업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등10인), 제안일자: 2016년 11월 2일.

또한 현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에서 학교폭력등과 같은 이슈를 어느 정도 다루고 있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는 기회가 계속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효정. (2016).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와 대응방안. 다문화와 인간, 5(2), 121-144.
- 김갑석. (2018).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4(1), 63-85.
- 김석준. (2015).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특성이 차별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연구'. 아세아연구 53(1), 6-41.
- 노성호/이성식. (2003). '청소년의 폭력범죄 피해요인에 관한 일 연구'. 피해자학연구, 11, 27-52.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한건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 심현정/신소라/조운오. (2017). '대학생의 일상활동이 지하철 성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학회보 19(1), 39-61.
- 오세연/김학범. (2013).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원인과 효율적인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9, 71-95.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이규영/이다예. (2017). '중·고등학교 다문화청소년들의 폭력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육문화연구 23(6), 453-469.
- 이민식/김람희. (2013). 청소년들의 일상활동, 건강 취약성과 학교폭력피해. 한국범죄학, 7(2), 101-125.
- 이에련. (2015). '한국의 다문화가정자녀의 학교부적응 및 폭력문제 해결방안에 일본의 다문화정책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9(2), 111-142.
- 이유나/조운오. (2015). '학교 폭력 피해 및 가해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2), 75-98.
- 이운호. (2007). 피해자학, 박영사.
- 이운호/김도우/유영재. (2011). 사이버 공간에서의 일상활동과 범죄피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 214-240.
- 이춘재/곽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실태와 특성'. 서울: 집문당.
- 정해숙/김이선/이택면/마경희/최운정/박건표/동제연/황정미/이은아. (2016).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분석', 여성가족부.
- 정행준. (2011).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환경: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목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윤오/민휘경. (2012). ‘범죄 피해 경험이 일상생활의 활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형사사법연구* 2(1). 111-135.
- 천호성/박계숙. (2012).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다문화*, 2(2), 416-444.

국외문헌

- Cho, S. & Wooldredge, J. (2018). Lifestyles, Informal Controls, and Youth Victimization Risk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7(4), 1358-1371.
- Cohen, L.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4: 588-608.
- Cohen, L. E., Kluegel, J. R. & Land, K. C. (1981). Social inequality and predatory criminal victimization: An exposition and test of a formal theor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505-524.
- Cossmann, J. S. & Rader, N. E. (2011). “Fear of Crime and Personal Vulnerability: Examining Self-reported Health.” *Sociological Spectrum* 31: 141-162.
- Garofalo, J. & Clark, D. (1992). Guardianship and residential burglary. *Justice*, 9(3): 443 - 463.
- Hindelang, M. J., Gottfredson, M. R., &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Cambridge, MA: Ballinger.
- Hodges, E. V. E. & Perry, D. G. (1999). “Personal and interpersonal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victimization by pe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677-685.
- Jung, H. W. & Park, S. H. (2010). “The changes of victimization and the predictors in early adolesc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1, 149-173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7). “Peer victimization: Manifestations and relations in school adjustment in kindergarte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4: 267-283.
- Lauritsen, J., Laub, J., & Sampson, R. (1992). “Conventional and delinquent activities: Implications for the prevention of violent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Violence and Victims*, 7, 91-108
- Like-Haislip, Z. & Warren, Y. (2011). “Routine Inequality: Violent Victimization at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Ethnicity among Females”, *Violence and Victims*, 26: 88-102.
- Nofziger, S. (2009). “Deviant lifestyles and violent victimization at schoo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 1494-1517.
- Peguro, A., A. (2009). “Opportunity, involvement, and student exposure to school violence.”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7(4), 299-312
- Peguro, A., A. (2013). “An Adolescent Victimization Immigrant Paradox? School-Based Routines, Lifestyles, and Victimization Across Immigration Generations,” *Journal of Youth*

- Adolescence, 42, 1759-1773.
- Olweus, D. & Susan, P. L. (2010). "Bullying in School: Evaluation and Dissemination of the Olweus Bullying Preven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0(1): 124-134.
- Popp, A., M. & Peguero, A., A. (2011). "Routine Activities and Victimization at School", The Significance of Gend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2): 2413-2436.
- Schreck, C. J., & Fisher, B. S. (2004). "Specifying the influence of family and peers on violent victimization: Extending routine activities and lifestyles theor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9(9), 1021-1041.
- Schreck, C. J., Wright, R. A., & Miller, J. M. (2002). "A study of individual and situational antecedents of violent victimization." Justice Quarterly, 19(1), 159-180.
- Tillyer, M. S., Tillyer, Rob, Miller, H. V. & Pangrac, R. (2011). "Reexamining the Correlates of Adolescent Violent Victimization: The Importance of Exposure, Guardianship, and Target Characteristic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4): 2908-2928.
- Wilcox, P., Tillyer, M. S., & Fisher, B. S. (2009). "Gendered opportunity? School-based adolescent victimization.:"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6(2), 245-269.
- Wright, R. T. & Decker, S. (1994). Burglars on the job. Boston: Northeastern University Press.
- Wynne, S., L. & Joo, H. (2011). "Predictors of School Victimization: Individual, Familial, and School Factors", Crime & Delinquency. 57(3): 458-488.
- 기타자료
-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search/search.do>
연합뉴스. '서툰 한국말에, 따돌림에 ...학교
떠나는 다문화 아이들'. 2018.06.17.

Abstract

The Impact of Victim Vulnerability and Guardian's Traits on School-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toward Korean Multi-Cultural Students

Chan-Ju Boo* · Sim Hye-In** · Younoh-Cho***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crucial factors which are associated with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s among Korean students with multi-cultural environments.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exploring the dangerous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tudents who have foreign parents in South Korea. It seeks to identify the key factors based on Routine Activity Theory. The study utilized data drawn from “Korean Survey on the Rights of Children and Youth” in 2015 conducted by Korean Youth Policy Institute. This data was collected from the total of 126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had multi-cultural family backgrounds. According to our analysis, we found that family members’ concern toward child(family characteristics vulnerability) is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which is related to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Among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vulnerability which include physical vulnerability, target characteristics vulnerability, and family characteristics vulnerability, the family related factor(family member’s concern) wa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ich could reduce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among students with multi-cultural backgrounds.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Routine Activity Theory, Victim of School Violence, Confrontation Plan

* Doctoral student in Dongguk University-Seoul, Department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 Doctoral student in Dongguk University-Seoul, Department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

*** Professor in Dongguk University-Seoul, Department of Police and Criminal Justice